



# 平山申氏宗報

(04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 澈 秀  
 編輯人 申 澈 秀  
 印刷人 宋 永 哲



## 시조 장절공 추향대제 봉행 (始祖 壯節公 秋享大祭 奉行)



2020년(庚子年) 추향제가 10월 25일(일요일, 음력 9월 9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장절공묘역에서 간소하지만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금년 봄의 춘향사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려되는 모임이나 행사 등을 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대종중은 전체 종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 향사의 참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대종중 제례위원과 강원화수회 제례위원 중 소수인원이 향사를 봉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향사일, 하늘은 청명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장절공묘역 전체에 서기(瑞氣)를 감돌게 하여, 향사(享祀)에 축복을 내리고 참제자들의 정성을 치하하는 듯이 장엄하게 빛나는 가운데, 향사의 준비와 봉행이 정성스럽게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영당(靈堂, 壯節祠)에서 철수(澈秀) 도유사와 흥균(興均) 제례위원장이 분향의(焚香儀)를 행한 후 곧바로 시조묘소에서 초헌관에는 흥균(興均)대종중 제례위원장, 아헌관에는 도현(道鉉) 강원도의회 부의장, 종헌관에는 현달(鉉達) 강원도 태백화수회장, 집례는 동원(東元) 대종중제례위원 대축은 우현(佑鉉) 대종중 제례위원이 분정되어 향사(享祀)를 봉행하였다. 제집사로는 대수(大秀), 현목(鉉睦), 승철(承澈), 동일(東日) 대종중 제례위원이 소임을 맡아 주었다.

향사의 봉행을 마친 후 철수(澈秀)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사태로 부득이 향사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시조(始祖)님께서도 자손들의 건강을 걱정하시어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참석해 주신 길

순(吉淳) 대종중 명예도유사, 동은(東銀) 대종중 고문, 현대(鉉大) 대종중 부도유사(제정공파), 용철(龍澈) 강원도화수회 회장을 소개하였다.

전체 참제자는 105명으로 조출한 추향제를 마치고 점심식사로 대종중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떡을 나누어 먹으며 화기애애한 담소의 시간을 갖고, 내년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 ▶ 성금(誠金) 및 화환(花環) 내역 ◀

[성금 : 230만원]

#### 파종중

밀직공파종중 10 정인공파종중 30 한성윤공파종중 10  
 시간공파종중 10 표충재 20 제정공파종중 10

#### 소종중

구한공종중(정) 10 찬성공종중(사) 10 진사공종중(문) 10  
 봉례공종중(제) 20

#### 개인

길순(대종중명예도유사) 10 현대(대종중 부도유사) 20  
 영소(제, 전 봉례공도유사) 10 현택(밀) 도봉구 20  
 동훈(판) 부산 20 영식 청주 5 순자 재일동포 5

#### [화 환]

춘천시 1점, 표충재 1점, 신광철(문희공34세) 1점

## 2020년도 추계 제례계보위원회 개최



2020년 10월 7일(수) 11:00 대종중회의실에서 추향사를 대비한 제례계보위원회 회의가 위원 9명중 7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대중중 철수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시조님의 추향사 봉행에 대한 상임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도 모아주시어 시조님 향사봉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홍균위원장은 제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향사가 봉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위원들에게 규모 축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향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의식은 종전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현관 선정에서는 위원들의 권유에 따라 초헌관으로 홍균위원장이 선정되었고, 아헌관과 종헌관에는 강원도화수회(회장 신용철)에서 추천한 도현(道鉉, 정언공파 33世) 강원도의회 부의장, 현달(鉉達, 문희공파 33世) 강원도 태백시화수회장이 선정되었다. 또한 집례에는 동원(東元)위원, 대축에는 우현(佑鉉)위원, 제(諸)집사는 현목(鉉睦), 대수(大秀), 승철(承澈), 동일(東日)위원이 수고하기로 하였으며, 제수준비, 봉송, 천막설치 등은 강원도화수회 제례위원과 대중중 직원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홍균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제사 때 지켜야 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자세한 설명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회의 후 대중중에서는 이번 추향사에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라 봉행 및 진행자 외에는 참제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상임유사, 대의유사 등 모든 종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간략하게 게재하였다.

### 종규개정을 위한 편집·종규위원회(2~4차) 개최



[8월 4일 위원회 개최 모습]

편집·종규위원회는 표균(彪均)위원장과 전체 위원들이 합심·노력하여 매월 첫째 화요일의 회의로 2차(8월4일), 3차(9월1일), 4차(10월6일)위원회가 빠짐없이 개최되었으며, 이로써 대중중규약 개정(안)을 마

련하였고 대중중도유사 선거관리규정의 검토와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기존의 규약과 규정에 대해 충분하게 연구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체 구성원이 동의하는 조문(條文)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계속, 매월 첫째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파종중규약준칙, 시도화수회규약준칙, 대의유사 선출·등록규정 등의 개정(안)과 임직원 보수규정, 상벌규정, 재산관리규정 등의 제정(안)을 준비하기로 하고, 준비되는 안들은 내년도 대중중 정기총회에 부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이전에 대중중 정·부도유사회회의와 상임유사회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 촉박함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도 장수종원 축하

대중중에서는 장수종원 축하계획에 의거, 을미대동보나 인터넷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졸수(卒壽:90세)이상 되신 종원에 대해 축하 서신과 함께 금일봉을 전달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금년 10월까지의 아홉 어르신을 축하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장수 어르신이 파악 되는데로 축하해 드릴 예정이니 주변에 해당되시는 종원이 계시면 파종중이나 화수회에 통보하여 축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길 바란다.

#### \* 축하 받으신 어르신

- 억수(億秀) 1927년 2월 24일생 정언공파(31世)
- 현하(鉉夏) 1928년 2월 5일생 제정공파(33世)
- 현오(炫吾) 1930년 7월 21일생 밀직공파(33世)
- 현동(鉉東) 1929년 12월12일생 제정공파(33世)
- 길영(吉永) 1930년 5월 21일생 정언공파(30世)
- 현수(鉉銖) 1930년 6월 24일생 제정공파(33世)
- 호용(琥容) 1930년 7월 18일생 제정공파(36世)
- 봉균(奉均) 1927년 1월 23일생 제정공파(33世)
- 현경(鉉慶) 1930년 2월 10일생 제정공파(33世)

####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사진1매
- ③ 을미대동보(2015년대중중발행) 또는 인터넷족보 본인등재 사본 1부
- ④ 자기소개서(중중 활동상황, 장수비결 등) 1부(해당자 한)

다음 종보는 2021년 1월 20일 발행 예정입니다.

### 대중중 장학생 2학기 장학금 지급

금년 2월에 선정한 대중중 장학생에 대하여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이어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가. 선정인원 : 18명
- 나. 지급자 : 14명(입대휴학 2명, 졸업 2명:제외)
- 다. 지급일 : 2020. 8. 31
- 라. 1인당 지급액 : 1,000천원(총액 : 14,000천원)

성명	학교(과)	성별	학년
신경연	서울대학교 인문정보학	여	3
신동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	3
신정우	이화대학교 소비자학	여	2
신필식	건국대학교 전기전자	남	2
신민용	홍익대학교 화학공학	남	2
신혜정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여	2
신동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	남	3
신민석	목포대학교 해군사관학	남	4
신호영	경희대학교 체육학	남	3
신효빈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	남	3
신민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여	2
신혜지	우석대학교 재활의학	여	4
신동선	호서대학교 화장품생명	여	2
신수경	홍익대학교 영상학	여	2

### 대중중의 주요업무 진행 사항



[보존처리를 마친 시조 영정]

대중중은 17개 과중중, 3개 유적지중중, 11개 시·도화수회와 국내외 70만 종원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의 예정된 업무들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 시조님 영정의 보존 처리작업을 완료하였다.  
 시조님의 영정은 1975년 12월 제작되어 1976년 춘천묘역 재실에 임시

봉안소를 만들어 봉안하였다가 1977년 12월 영정각(壯節祠)을 신축하여 영정을 모셨다. 이후 훼손과 도난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원본을 대중중 금고안에 보관해 왔는데, 45년의 풍화로 인해 금박의 칠이 떨어져 나가고 갈라지는 등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보존처리작업을 하기로 상임유사회의와 총회결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문희공(文僉公) 영정의 보존처리와 국가표준 영정등록을 시행한 바 있는 현만(鉉晩) 감사유사의 소개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대표를 맡고있는 장황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여 약 5개월의 보존처리작업을 완료하였다. 장황(粧潢/裝潢)은 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책이나 화첩(畫帖), 족자 따위를 꾸미어 만드는 일 또는 만든 것을 의미한다.

▶ 춘천묘역의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다.  
 춘천묘역의 남녀화장실은 춘천시청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화장실 단장 모습]

를 실시하여, 지붕의 기와를 모두 걷어낸 후 상태가 양호한 기와로 재시공하였으며 화장실 내부 전체의 타일과 변기를 교체하였고 장애인

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다만, 창문과 출입문은 춘천시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하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인 상태여서, 동절기 방한대책에는 미흡함이 상존하고 있다.

당초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하여 공사에 들어갔으나 흠직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춘천시의 지원에 감사하면서 점진적으로 보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강원도화수회 용철(龍澈)회장은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과장과 면담하여, 주차장에 튀어나와 있는 옹관의 제거와 화장실 출입구앞의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 화장실 전체에 대한 내·외부 청소, 그리고 홍살문의 칠 등을 요청한 바 시조님의 추향사 이전에 춘천시청에서 제반 작업을 마쳐 주었다.

▶ 춘천묘역의 장절공기념관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1979년 건립된 장절공기념관에 전국의 종원들로부터 출품받은 서책과 액자 등은 물론 강원도 지방문화재 지방기념물 21호인 도포서원현판이 보관되어 있으나, 기념관 바닥면이 흙바닥 위에 전돌을 깔아놓은 구조이고 통풍이 잘 되지않아 내부가 습한 상태로 40여년을 지내왔다. 그동안 방충약재와 방습을 위한 제습제 및 숯을 비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시물품들의 훼손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강원도화수회 현목(鉉睦)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현재설비에 의뢰하여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관의 모든 전시물품을 상층재로 옮겨놓고 공사에 착수하여 기념관 바닥의 전돌을 들어 올리니 맨땅이 드러나고 여기저기 나무뿌리가 뻗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월여에 걸쳐 바닥면을 파내고 방수콘크리트 포장, 방습재 포설, 마루공사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상층재에 옮겨놓았던 전시 물품들을 기념관의 원위치에 다시 전시해 놓았다. 이 전시물품들을 운반하고 40여년간 쌓였던 먼지와 액자의 벌레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동은(東銀) 대중중고문, 강원화수회 용철(龍澈)회장, 현목(鉉睦)부회장, 성호(聖浩)총무, 국철(國澈)청년회장, 대중중 철수(澈秀)도유사와 직원들이 땀과 정성을 쏟으며 서로를 경



[기념관 내부 모습]

애(敬愛)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

방수공사와 더불어 기념관 내부에 환풍구를 설치하여 자연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내부

의 전기공사와 기념관 주위에 배수관을 매설하는 작업도 병행 실시하였다.

▶ 장절공묘역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다

장절공 신숭겸(申崇謙)장군은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구국충절(救國忠節)의 표상(表象)이시고, 위왕대사(爲王代死)하신 후 예장(禮葬)되신 춘천의 묘소는 일인삼분(一人三墳)의 유례없는 형태로서 묘역에서 1,100여 년 변함없이 제례를 봉행해오고 있음은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문화자산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절공의 구국충절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고 장절공묘역을 보다 더 안정적이며 아름답고 경건하게 유지·관리하여, 전국의 평산신씨 종원은 물론, 춘천시민, 전국민이 친숙하게 찾아오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문화공간, 힐링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절공 묘역의 중장기발전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문화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 춘천역사문화연구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념관 건립부지의 위치 선정, 묘역 및 재실 주변의 배수계통 정리, 묘역 주변의 식생 보존 및 후계목 관리방안 등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 숭의전(崇義殿) 2020년도 추향사



2020년도 10월 11일(일) 11:00 경기도 연천군 아미산에 위치한 숭의전에서 우리 시조 장절공 신숭겸 장군을 비롯한 고려 태조 왕건 외 3임금과 16공신들의 추향사가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길순 대종증명예도유사가 아헌관으로 참제(參祭)하였고, 분헌관으로는 사간공과 화당공중중도순(道淳)도유사가 봉행(奉行)하였다.

숭의전은 조선 태조 원년(1392년)에 고려 원찰이었던 연천군 양암사(仰巖寺)터로서, 초기에는 태조 왕건을 위한 사묘(祠廟)였으나 1399년 조선 정종 대에 왕건의 해중,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등 7왕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그 뒤 세종 대에 '조선의 종묘에는 5왕을 모시는데 고려조의 사당에는 8왕을 모심이 합당치 않다'하여 그 뒤부터는 고려조 태조, 현

종, 문종, 원종 등 4왕 만을 모시게 되었다. 또 문종대에 와서 시조 신숭겸장군을 비롯하여 고려조에 충신 16공신을 함께 배신청에 배향하게 되었다.

숭의전의 초기 건물은 6.25동란 중에 전소되어 현재의 건물은 1973년 새로이 복원되었고, 이에 앞서 1971년 12월 28일 국가사적 제22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숭의전 향사는 개성왕씨 대종회에서 봉행을 주관하고 경기도 연천군의 후원으로 매년 2회 4월과 10월 첫째주 일요일 11:00에 정기적으로 거행되는데 지난 봄 추향사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일로에 있어 연천군의 권유에 따라 향사를 봉행하지 못하여 너무 아쉬웠으나 이번 추향사에는 연천군과 협의하여 철저한 방역속에 20명으로 한정하여 소규모로 거행하기로 하였고, 또 이번에는 추석연휴가 겹쳐서 부득이 둘째 일요일인 이날 봉행하게 되었다.

### [3大 遺跡址 碑文①]

## 시조 장절공 악강유허비명 : 용산단 소재

### 始祖 壯節公 嶽降遺墟碑銘



[악강유허비각]

▶시조 장절공 신숭겸장군의 3대 유적지(용산단, 표충재, 춘천묘소)의 비석(碑石)에 있는 비문(碑文)을 원문과 함께 3회에 걸쳐 게재하여, 다시한번 시조의 숭고(崇高)한 절의(節義)와 유훈(遺訓)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고자한다. ◀

호남 곡성현곡城縣에서 남으로 40리 쯤에 있는 화장산華藏山 동쪽 양강동兩江洞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았다가 너울거리며 나는 듯한데, 이는 곧 비래산 飛來山이요, 그 아래 구룡리九龍里가 있으니 실로 우리 시조 고려태사 장절공이 생장生長하던 유허遺墟이다.

신공정申公井, 장군등將軍燈, 독서당讀書堂, 치마대馳馬臺같은 고적古蹟을 역력히 지점指點할 수 있고, 요속謠俗(풍속을 읊은 노래)이 흔히 그 영이靈異함을 일러 주고 있다. 아! 공의 정충 대훈精忠大勳이 일성日星과 같이 찬란하여 전조前朝 일통一統의 기업基業을 열고 동방 절렬節烈의 창시倡始가 됨으로써 조정의 숭보崇

報와 사람들의 경모景慕함이 세대가 오랏수록 더욱 극진하여, 무릇 유적이 있는 곳에는 조두組豆(제기)를 갖추어 향사하고 비갈碑碣(비석)을 새기어 기록하였는데, 약강嶽降(산악에 신령한 정기로 위인을 낳았다)한 이 고장으로 말한다면, 이에 산천 정령山川精靈이 뭉치어 태어나고 문무 예업文武藝業이 곁들여 이루어진 곳이니, 어찌 다만 기러기를 떨어뜨린 평산平山이나 충용忠勇으로 목숨을 바친 동수桐藪(대구 공산)에 비길 뿐이리오.

더구나 공의 정령精靈(혼백)은 물이 땅에 있음과 같아서 비록 가지 못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못 잊어하고 머뭇거리 떠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요, 저기가 아닐 것임이 틀림이 없거늘, 아직도 이를 표한 바 없었으니, 신리神理(신의 이치)로나 인정人情으로나 어떻게 하겠는가. 덕양서원을 구룡리에 세우지 아니하고 구태여 읍에서 가까운 곳으로 한 것은 또한 전사前事(전에 지나간 일)의 소홀함이라 할 것이다.

후손 명희命熙가 이를 매우 유한遺恨으로 여긴 나머지, 후손 보국 헌穗과 판서 석희錫禧에게 의문하여 고리故里의 유허에 나아가 전토田土와 임야林野를 사들이어 초목樵牧을 금하고 중재를 경기經紀하면서, 또한 돌을 다듬어 비를 세울 것을 도모하였는데, 문득 어느 날 밤에 큰 돌이 유허 곁의 밭에서 불쑥 나타나니 길이가 10여 척이었다.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어 혹은 하늘과 신령이 도운 것이라 하였다.

마침 덕양서원이 헐린 뒤에 단갈壇碣(제단의 비석)을 마련하는 역사役事의 힘을 빌어 드디어 계속하였으나 끝마치지 못했더니, 30년이 지난 정유년(서기 1897) 가을에 이르러 종의宗議가 협동되어 비로소 비를 갖추어 세우게 되었으니, 비 하나가 서는 것도 또한 때가 있는 것인가. 어찌 천년 동안에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다가 문득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인가.

이 비로 말하면 어찌 다만 오종宗만이 우리러 침의瞻依할 바이리오. 모든 관원官員과 사민士民들로 여기를 지나는 자가 숙연히 존경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애연優然히 감동하는 마음을 우리나게 하지 않음이 있으며, 절로 탐욕貪慾한 자 청렴淸廉하게 되고 나약懦弱한 자 뜻을 세울 줄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명銘하여 이르기를,  
 기록하신 우리 선조先祖시여 하늘이 인걸人傑을 내시었네  
 공훈功勳은 삼한三韓을 뒤덮었고 절개는 구소九霄(하늘)에 닿았었네  
 끼쳐주신 경복慶福의 그지없음이여 자손子孫은 천千이오 억億이로다  
 신위神威의 뚜렷함이여 관우關羽와 악비岳飛에 백중伯仲하리로다  
 여기 구룡리九龍里를 살피 봄에 음陰과 양陽이 풀리어 아름답도다  
 말 달리던 대臺는 저기 있고 글 읽던 당堂은 여기 있도다  
 즐기차게 흐르는 저 강물은 공의 도략韜略①을 도왔으리라  
 높고 빼어난 화장산華藏山이여 공의 기백氣魄을 닮았도다  
 영검한 자취의 황홀함이여 흠칫하여 뉘옵는 듯하도다  
 두 곳 서원은 이미 헐리었고 태백산 태사사太師祠는 아득히 멀었도다  
 어디에다 이 마음 달래리오 나고 자라신 옛마을 예 있도다  
 돌덩이가 별떡 일어나니 신령도 이에 도우심이라  
 이수 귀부龜首龜趺②의 우뚝함이여 오래도록 불후不朽함을 보임이로다  
 천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백세百世토록 두고두고 그지없으리라

길이 우리러 생각하노니 조석朝夕으로 강장姜樞③에 아른거리는 도다  
 예禮는 그 근본을 못 잊어함이오 낙樂은 소자생所自生을 즐기이로다.

- 광무 원년光武元年 정유(서기 1897) 가을에 후손 판서 기선箕善은 삼가 찬撰하고 내무협판 석희錫禧는 삼가 서書함. -

註①韜略=六韜三略의 준말. 모두 兵書를 이룸인데 轉하여 軍略을 가리킨다.

②龜首龜趺=螭首는 碑의 갓(加檐石)에 뿔 없는 龍을 새긴 것, 龜趺는 거북 모양으로 새긴 받침돌(籠臺石=基石)을 이룸.

③羹墻=사람을 몹시 仰慕함을 이른다. 後漢書 李固傳에 <昔堯歿之後 舜仰慕三年 坐則見堯於牆 食則見堯於羹>에서 온 말.

嶽降遺墟碑銘并序<原文>

湖南谷城治之南四十里華藏山之東兩江洞有山聳起而盤舞完如飛來者曰飛來之山山之下有九龍之里我始祖麗太師壯節公生長之墟也有申公井將軍之嶺讀書之堂馳馬之臺故跡歷然可指而謠俗多述其靈異焉噫公之精忠大勳震耀日星開勝朝一統之業爲東方節烈之倡所以朝家之崇報士林之景慕愈久而愈勤凡遺蹟之所在徹俎豆以享之碑刻以識之而至於嶽降之地則乃山川精靈之所鍾以生文武藝業之所寓以成奚但擬於東陽落陽之區桐藪立槿之處而已且公之靈雖如水在地無所不之而其眷戀彷徨必於此而不於彼決矣而迄未有以表之其於神理人情何如也德陽書院之不建於九龍而必傍於邑治亦前事之疎也後孫命熙深以爲恨謀於後孫輔國勳判書錫禧就故里遺墟買田畝林麓禁其樵牧而經紀宗財且議伐石立表忽一夜有大石突起於墟傍田間長丈餘人異之咸以爲天相神助適因德院撤後壇碣之役力遂繼而未果焉越三十年而至丁酉秋宗議協同始克成碑而立之一碑之立其亦有時耶何未遑於千載而奄成於一朝也是碑也豈直爲吾宗之所瞻依凡官紳士民之過此者有不肅然而起敬優然而興感不自知其頑廉而懦立者哉銘曰

於我我祖天挺人豪功蓋三韓節干九霄餘慶綿綿子孫千億神威赫赫伯仲關岳睽龍里陽陰解良馳馬有臺讀書有堂渾渾長江資公韜略嶺嶺華山像公氣魄靈跡恍惚愜然如見二院既撤白祠云遠于何寓慕惟茲桑梓有厥者石神其詔止龜頭穹崇爰示不朽千載在前百世在後永言瞻想朝夕羹墻禮反其本樂樂其所自生 光武元年丁酉

後孫判書箕善謹撰 內務協辦奕熙謹書

[출처 평신신씨전년사]

[平山申氏 寶物]  
**시조 장절공 신숭겸 장군 동상**  
**(始祖 壯節公 申崇謙 將軍 銅像)**



[춘천묘역내 동상]



[동상 뒤에 설치된 부조]

- 사실事實

시조 고려대사 장절공의 동상은 태생지 곡성 용산단 경내와 전적지 대구 봉무동 파군재, 춘천 묘역 앞 광장 등 3대 유적지에 모셔져 있다.

공이, 서기 927년 왕건 태조와 함께 대구 동수에서 후백제 견훤군을 맞아 싸울 때 전세가 극히 불리하게 되자 급히 태조를 애수礙藪(깊은 숲)에 숨기고 태조로 위장하여 어거御車(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진두에서 싸우다 전사하니, 견훤군은 공을 태조로 여기고 두상頭上을 취해 달아났다. 이 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태조는 위왕대사爲王代死(왕을 대신하여 죽음)한 공의 충절에 크게 비통해하면서 곧 두상이 없는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의 신후지지身後之地(죽어 묻힐 곳)로 도선국사에 의해 소점된 춘천의 묘지를 양여讓與(양보)하고 금으로 두상을 조조雕造(새겨만듬)하여 3기의 봉분을 조성 예장禮葬(예식을 갖추어 장례)한 후, 원당願堂(명복을 빌던 사찰)을 지어 명복을 빌게 하는 한편 수묘군守墓軍 30호로 하여금 수호토록 하였다.

그로부터 1천년이 넘도록 두상이 없이 예장되신 시조님을 상상할 때 마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던 후손들이 지난 2002년 11월 26일 대중중 정기총회에서 동상건립을 의결, 위원장에 상식相式도유사, 부위원장에 현호鉉皓감사유사, 위원에 우현佑鉉감사유사 등 대중중 임원으로 구성하고, 10여 차례의 위원회의를 거듭하면서 전국 중원을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하는 한편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고 기본설계와 조각가, 시공사, 건립장소 선정 및 현장답사 등 숭한 노력 끝에 2년만인 2004년 10월 3곳에 동상을 건립 준공하게 되었다.

시조 장절공의 동상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여러 고증考證을 받아 상신像身은 영정과 같이 칼을 짚는 입상으로 하고, 좌대와 기단을 포함 높이도 8.1m로 하여 장군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부조浮彫(돌에 새김)폭은 9m27로 순절 연도인 서기 927년을 상징하였으며 동상 뒤에 병풍처럼 부조벽을 설치하고 앞면엔 사안도射雁圖와 충렬도忠烈圖를 새기고 뒷면에는 시조님의 약전略傳, 건립문, 현성록으로 구성하여, 후세에 공의 늠름한 위상을 항시 첨앙瞻仰(우러러 봄)하고 충의정신을 길이 본받도록 하였다.

- 건립취지문建立趣旨文

의기義旗를 들어 고려高麗를 개국하시었고 순절殉節로 국권國權을 수호하시어 고려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신 시조 장절공壯節公께서는 두상頭上을 잃으신 채 예장禮葬을 치르시었으니 영전靈前에 설 때마다 통탄을 금할 수 없고, 원래 태백산성에 태조太祖께서 장절공壯節公과 충절 유공忠節庾公(유금필 장군) 무공 복공武恭卜公(복지겸 장군) 등의 철상鐵像을 주조하여 봉안하고 이곳에 사우祠宇를 세워 3태사太師를 배향하였으며 사호祠號를 상충尙忠이라 하였으나 임진·정유 양란兩亂에 소실되었고 철상은 광복 후 총파銃破(총에 파괴)되었으니 또 한 번 비통한 노릇이다.

춘천 묘역墓域, 대구 표충재表忠齋, 곡성 용산단龍山壇 등 시조 3대 유적지는 천년의 유서由緒깊은 사적지史跡地요 공산 동수公山桐藪에서 위왕대사爲王代死하시어 절의節義의 표상表象이 되신 위대한 시조의 영령英靈을 모신 성역聖域이니 ‘한고조漢高祖가 형양滎陽에서 항우項羽에게 포위되어 죽게 되자 장군 기신紀信이 위장대사僞裝代死하여 한고조를 구명救命한 동문일사東門一死’의 고사古事와 더불어 인류역사에 길이 빛날 사적지다.

따라서 우리 70만 현손現孫들은 시조 장절공의 위훈偉勳을 더욱 빛내고 선조의 사적事蹟을 엄숙히 수호, 보존,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진대 국가예산에 의하여 3대 유적지가 본격적으로 성역화사업聖域化事業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참배객參拜客이 증가일로에 있을 뿐 아니라 국민교육의 도량이 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후손들은 정성을 모아 3대 유적지에 3기基의 동상을 존엄하게 건립하여 위령慰靈의 제단祭壇으로 모시어 추모의 예를 올리고 숭고한 대의대절大義大節의 정신을 영세永世토록 계승하고자 한다.

- 설계도 해설設計圖解說

1. 시조 동상은 장군 입상立像으로서 상신고像身高는 3,800mm, 폭은 2,050mm이며 영정影幀을 토대로 한 것인 바, 영정은 고려사 세가高麗史世家(恭讓王)에 「성조보공배홍신복유최육공도형대어여향대묘춘추불특聖祖報功裒洪申卜庾崔六公圖形對御與享大廟春秋不忒」이라 하였으니 태조 어진御眞과 같이 대묘大廟에 영정이 봉안되었었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역대왕조실록 고려조편에 역대 왕의 어진과 더불어 위인傳偉人編에 영인본影印本이 등재되어 국사자료로 공인, 전래된 것이며,

2. 또한 원래 장절공 영정 진본이 순절지인 대구 공산에 태조께서 지묘사智妙寺를 창건하시어 봉안, 명복을 빌게 하였으며, 그 후 대비사大悲寺로 옮겨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바 있음.

3. 현 장절공 영정은 상기 자료와 더불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최영희崔永禧박사의 고증과 일본국 국학원대학 고고학박물관 소장 자료 갑주甲冑(갑옷과 투구) 등을 근거로 한 것인 바, 이 갑주甲冑는 일본 규수

九州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고려 원종 15년에 여원麗元연합군이 일본 정벌 시 고려 장군의 갑주甲冑와 복식服飾이었던 것임.

4. 뿐만 아니라 장절공 상像은 원래 황해도 태백산성에, 태조께서 장절공과 충절공 유금필庾黔彌장군, 무공공 복지겸卜智謙장군 등 3대사의 철상鐵像을 주조하여 봉안하여 오다가 광복 후 총파銃破되었으니, 현재 생존한 후손들이 그 용상容像을 역력히 알고 있어 어김없이 고증한 것임.

①좌 대座臺(3,780 x 2,100) : 단위 mm

좌대는 장군이상이므로 성곽을 상징하여 축단하였으며 4면 모서리를 접어 통석으로 돌렸음.

②기 단基壇(510 x 3,960 x 2,310)

분향焚香을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에 신도神道를 두고 좌우에 상계上階 · 하계下階를 두었으며 상석床石을 놓아 헌화 또는 헌주하며, 향로香爐를 놓아 분향을 하도록 하였음.

③부 조浮彫(1,320 x 2,640)

부조는 전면에 충렬도忠烈圖, 사안도射雁圖 해설문, 후면에 약전略傳, 건립문, 헌성록을 동판 양각으로 하였음. 약전과 해설문은 한·영·일·중 4개 국어로 함.

④부조벽浮彫壁((2,700 x 9,270 x 600)

부조벽은 성벽 도형으로서 시조께서 순절하신 서기 927년을 상징, 폭은 9,270으로 하고 높이를 2,700으로 함.

⑤바닥판재

바닥판재 또한 3,300 x 9,900으로 하여 춘·추대제일대祭日을 상징, 세세연년歲歲年年 영원토록 기원한 것이며 부조바닥은 12,870 x 7,920이고 전정前庭은 16,500 x 6,600으로 하였음.

-. 건립문建立文

의기義旗를 들어 고려高麗를 개국하시었고 삼한통일三韓統一의 위업을 이룩코자 위왕대사爲王代死하신 시조 장절공壯節公께서 순절하신지 108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선조님들은 위대한 유적을 소중히 보존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70만 후손들이 두상頭上없이 예장되신 묘소나 영정 앞에 설 때마다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을 참을 수 없어 동상을 건립하여 위용을 우러러 뵈옵고 위령의 제단으로 삼고자 서기 2002년 11월 26일 대중중 정기총회에서 곡성 용산단, 대구 표충재, 춘천 묘역에 3기의 동상을 건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년 12월 9일 동상건립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헌과 고증자료는 물론 전국 동상의 실태를 참조하여 동상 기본계획을 수립, 서정남徐正男 문화재 전문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많은 노력 끝에 곡성은 용산단 경내, 대구는 전적지인 봉무동 파군재 삼거리 교통섬, 춘천은 묘역주변 주차장 부지로 동상건립 위치가 허가되었으며 대구는 시당국과 협의가 되어 동상건립 후 기부채납

하기로 2003년 10월 10일 동상건립위원, 부도유사, 감사유사 연석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동상건립위원회에서 시공희망자의 의향서를 심의하였고 2003년 12월 30일 조각가 최승호崔昇鎬교수와 동상건립 계약을 체결하여 동상제작을 시작하였으며 동신미술주조와 두륜석재가 시공하였습니다.

2004년 3월 23일 춘천 시조묘소에서 동상건립 고유제를 봉행한 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10월 자손만대에 영원히 보존하여야할 시조동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상건립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건립관련 일을 맡아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성금을 보내주신 종종, 화수회, 종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제 肅宗告由祭祝文

단군기원 4337년 갑신(서기 2004) 9월 병인 삭 초 9일 갑술 후손 대중중 도유사 상식相式은 감히 시조 고려 개국원훈 대사 장절공부군壯節公府君 동상銅像 앞에 엎드려 생각건대 순절 충의는 전어무극하고 용장이신 할아버님이 한번 부르짖으심에 고려 반 천년의 터전을 이룩하시니 후손들은 감모感慕함을 이기지 못하여, 오래오래 갈 수 있는 동상을 춘천 묘소 입구, 대구 파군재 삼거리, 곡성 용산단 경내에 3기의 동상을 건립하여 거룩하신 용모容貌를 우러러 뵈옵는 듯 하오며 면면히 전해오는 훈덕勳德은 영세永世에 빛나고 높으신 이름 길이 전하니 건곤乾坤이 유대悠大하며 거룩하신 위상偉像은 길이 전하여 해와 달처럼 빛나리니 후손들은 국공鞠躬하여 삼가 고유告由드립니다.

祝文(原文)

維 檀君 紀元 四千三百三十七年 甲申 九月 丙寅朔 初九日 甲戌 後孫 大宗中 都有司 相式 敢昭告于

始祖 高麗 開國元勳 太師 壯節公府君 伏惟 殉節忠義 傳於無極 勇將一呼 半千國基 不勝感慕 深遠由緒 春川 墓所前 大邱破軍峙三距離內 谷城龍山壇境內 三基 銅像 建立 烈烈偉容 如時仰瞻 綿綿勳德 永世赫赫 高名傳世 乾坤悠大 偉像悠傳 日月輝光 裔孫鞠躬 虔告謹告.

[출처 평신신씨천년사]

[始祖配享地 巡廻6回] 景백사(景白祠)

경백사는 경남 사천군 용현면 온정2길 42 성박산(星朴山) 아래 남쪽에 있다. 서기 1924년(甲子年) 후손 30세 영릉참봉 상(相)이 4종형제 환(桓), 건(健)과 더불어 평산 태백산성 태사사(太師祠)에 가서 시조 장절공 철상(鐵像)을 모사(摹寫)해 오고 서기 1926년(丙寅年) 봄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봉안하면서 편액(遍額)하기를 경백(景白)이라 하니 무릇 태백산성을 경양(景仰)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 후 서기1938년(戊



寅年)에 사론(士論)으로 진선 신공 휘 현(進善 申公 諱賢, 13世)과 목은 이공 휘 색(牧隱 李公諱穡)과 운곡 원공 휘 천석(耘谷 元公 諱天錫)을 추배하였다.

경백서원(景白書院)은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길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1944년 봄에 서원건축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 경백서원과 장충문을, 1966년에는 영수재를 완공하였다.

경백사(現 申有均도유사, 文僖公派 32世)는 1977년 1월 30일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자료 23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3월 중정(仲丁)일에 유림과 같이 향사를 봉행한다.

### 파종중 · 화수회 소식

## 2020년 모영재 향사 봉행 (慕影齋 享祀 奉行)



고려태사 장절공의 영각 유허비가 있는 모영재에서 10월 17일(토, 음력 9월 1일) 시조공의 향사를 봉행하였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약40여명이 참석하 가운데 신현문 도유사는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향사에 참석하여 주신 참배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제한된 인원



[신현문도유사]

만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새로 단장된 모영재가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마친 후, 향사를 진행하였다.

초헌관은 동선 부도유사, 아헌관은 효철 문화유사, 종헌관은 현기 감사유사가 받들고 집례는 학균 전 부도유사, 축관은 상경 전 부도유사가 정성을 다하여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 ■ 헌성금 명세서 ■

#### 1. 종중 / 단체 헌성금

단체명	금액(원)	비고
평산신씨 대종중	200,000	도유사 : 신 철 수
제정공파 약목 종중	100,000	도유사 : 신 응 균
사천 이양재 종중	100,000	
진주시 화수회	100,000	회 장 : 신 명 식
<b>소 계</b>	<b>500,000</b>	

#### 2. 개인 / 헌성금

성명	세	派	종사 직책	금액(원)	비고
신 동 선	36	문희공	표충재 부도유사	500,000	초헌관
신 효 철	37	판사공	표충재 문화유사	500,000	아헌관
신 현 기	33	제정공	표충재 감사	200,000	종헌관
신 현 응	33	제정공	표충재 부도유사	100,000	양산
신 현 주	33	진사공	표충재 상임유사	100,000	상주
신 세 균	32	사간공	표충재 상임유사	50,000	대구
신 상 섭	36	사간공	표충재 상임유사	50,000	대구
신 학 균	32	사간공		50,000	예천
신 현 득	36	판사공	표충재 상임유사	50,000	청송
신 현 수	33	사간공		50,000	영천
신 재 봉	36	판사공	표충재 사무국장	50,000	청송
신 현 철	33	사간공	표충재 상임유사	50,000	군위
신 명 진	36	판사공		30,000	영덕
<b>소 계</b>				1,780,000	
<b>총 계</b>			단체 + 개인	2,280,000	

#### 3. 화환 기증자 명단.

- 1) 평산신씨 대종중 도유사 신 철수 1점
- 2) 창원시 화수회 회 장 신 대철 1점
- 3) 진주시 화수회 회 장 신 명식 1점

★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덕양서원 '2020년 추향사' 봉행

곡성의 성황신이며 고려개국 1등공신인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2020년 추향사가 10월11일(일요일) 덕양서원 종중(도유사 신인현) 주관으로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소재 덕양서원내 덕양사에서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이번 추향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림들이 불참한 가운데 20



[신인현도유사]



여명의 본 손들 만이 참석해 규모를 축소하여 봉행하였다. 향사는 간소화 된 홀기에 따라 치렀지만 시조이신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충과 절의의 정신을 기리기에는 추호도 부족함이 없었다.

봉행에 초헌관은

동주(정언공파 도시공종중 회장), 아헌관은 재준(덕양서원 수석부도유사), 종헌관은 상남(광주전남화수회장)이 각각 맡았으며, 약식 홀기에 따라 40분 간 엄숙히 봉행되었다.

참제자로는 3헌관과 덕양서원 도유사 인현(조선대 명예교수)을 비롯하여 근택(사간공파도유사, 대중중부도유사), 현덕(전 덕양서원도유사, 대중중고문), 형식(대중중부도유사), 현대(용산단 도유사), 하섭(전 장군단 도유사), 동연(장군단 도유사), 엄찬영(덕양서원장) 등 덕양서원 임원이 참석해 위왕대사 하신 장절공의 정충대절의 정신을 기렸다.

평산신씨 시조유적지인 덕양서원은 1589년 선조22년에 곡성현감 후손 옥과 전라도관찰사 이광의 노력으로 지역유림과 함께 창건한 우리나라 초기 서원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월봉서원(1578년 창건)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전남지역 3대 사액서원(1695년 숙종 21년)이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많은 서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들 서원들은 대부분 학자들을 배향 인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장군을 지낸 한분만을 배향한 서원은 전국 어디에도 없기에 덕양서원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더하며 사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조상에 대한 숭배와 국가에 대한 충과 절의 정신이 시들어 가는 요즘, 각박한 세태를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행사로 평가 받아 오고 있다.

또한 덕양서원은 1981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5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덕양서원의 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봉행하는데 유림과 본 손들에 의해 전통적인 유교 제례로 매년 지켜 내려오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부득이 본손만 참례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유근기 곡성군수와 철수 대중중도유사 등은 성금을 보내왔다.

## 종원동정

## 신현경(申鉉京, 사간공파 33세) 국회 관인(官印) 공모에 당선



[국회의장으로부터 수상]



국회 관인은 대한민국 국회(國會)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印章)으로 국회

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되어 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러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한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에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公募)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는데 신현경(申鉉京) 작가의 작품이 선정 및 당선되어 새로운 관인을 확정하게 되었다.

宗은 전북 정읍시 용동면에서 아버지 신서균(申西均, 사간공파 32세) 어머니 김해자(金亥子)사이 태어나 원광대학 미대 서예과를 졸업하고, 중국항주(杭州)미술학원 서예석사 연구과정을 거쳐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종은 2010년부터 내리 3년을 대한민국 미술대전 진각 부분에서 입선하였고, 2013년에는 중국 항주에서 국제전각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휘호(徽號)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으며, 또 금년 '202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5월 19일 여의도 국회내 시상식장에서 국회의장(문희상)으로부터 국회관인 공모 당선작의 시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본인의 영광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를 되기를 기대한다.

## 신문경(申門暲, 사간공파 35세)

- 理學博士學位 取得 -



문경宗은 2020년 8월19일 경희대학교에서 논문(제목-Infant feeding characteristics and later dietary intakes in Korean preschool

children)으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주도에서 아버지 정식(正湜, 사간공파 34世), 어머니 고민자(高民子)여사의 1남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중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초중고교 및 대학생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을 하는 동안에도 재능이 출중하여 앞으로의 기대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가늠하고 속 깊은 마음은 대견하다고 한다.

아버지 정식宗도 법학박사 학위(國際去來法 專攻)를 취득하여 평산신씨 종보165호(2015년 4월21)에 소개되었고, 종사(宗事)에도 열심히 하여 제주도화수회 총무를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제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딸의 이학박사 취득으로 부녀(父女)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영광을 누렸다.

문경 좋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미래의 교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꼭 꿈을 이뤄서 본인의 영광은 물론 가문을 더욱 빛내기를 기대한다.

# 학 교 길

## 신 가 균(정언공파, 32世)

그리 하는 북한정치를 우리 부모님이 마땅찮아 하시던 때가 8.15광복 다음 해이지 싶다. 내가 입학하여 처음 가 본 수동인민학교의 외벽에 검은 판자를 겹겹이 댄 일본식 교사(校舍)였다. 그 터 아래에 교사(校舍)가 또 한 채 있었는데 이영지붕이고 창에는 창호지를 못 발라서 창살만 있었다. 그런 교실 흠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공부할 때였다. 선생님이“집에 방석이 있으면 가꼬와서 깔고 안자라.”하셨다. 교실 바닥에 차가워서 그러셨을 것이다.

입학한 그해 가을에 운동회 하는 날이었다. 학교 정문에 술문은 세워져 있었는데 만국기가 펄럭였는지는 기억이 없다. 운동회하기 며칠 전에 연습으로 뽀박질 할 때는 일등을 몇 번 했었다. 그런데 정작 운동회 날은 3등도 못하여서 연필 한 자루도 못 탔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 잘 땀다!”라고 할머니가 주어주는데 우쭐한 나는 맛있는 청대콩 범벅과 삶은 달걀, 쥔 고구마 먹은 생각이 난다.

내가 그때 다니던 학교가 있는 곳을 고능(古陵)이라고도 한다. 행정 지명은 수동(修洞)리이다. 수동인민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십리라고 하였다. 그때 학생 수는 많은데 교실이 두세 칸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한 학교에서 200m~300m 거리쯤의 진불산(眞佛山)에는 우리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십사세조(十四世祖) 휘(諱) 안(晏) 종부시령공묘(宗簿寺令公墓)소가 있었다. 그 묘소 바로 아래의 한옥 제당(祭堂)의 넓은 사랑채로 수동인민학교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한 생각이 난다.

그 진불산(眞佛山) 어디에 그 종부시령공(宗簿寺令公)의 큰아들 되시는 현령공파조(縣令公派祖)산소가 있었다고 한다. 둘째 아들인 문희공파조(文僖公派祖)산소는 종부시령공 묘소에서 마주보이는 강 건너의 광평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운 비석(碑石)이 무척 커서 멀리서도 보였었다. 그 종부시령공(宗簿寺令公) 셋째 아들인 휘(諱) 효(曉)정언공파조(正言公派祖)묘는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에 있다.

내가 수동학교 일학년 때는 그 사랑채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종부시령 제당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은 언제 족보(族譜)를 보고 종부시령 제당(祭堂)임을 알았다.

위의 종부시령 묘소와 제당 이야기를 쓴 연유가 있다. 6.25전쟁이 나기 전인지 후인지 붉은 세력이 그 제당 허물어다가 어디에 다른 건물을 짓는데 목재로 썼다는 말을 들은 듯한 소문대로 정말 없어졌다면 이 줄문에 그 제당이 있었음을 남기고 싶어서 썼다.

그런 일이 있던 학교 길 어느 고개에 돌맹이를 모아놓은 서낭당이 있었다. 그 서낭당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울긋불긋한 형겼 속에는 도깨비가 숨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 거기를 지날 때마다 무섭고 심술꾸러기 도깨비가 나를 흘려서 개울로 끌고 가서 물을 꿀딱! 꿀딱! 먹었다 꺼냈다 할까 봐 겁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서낭당 나뭇가지에 빨건 피

## 아버지와 목욕의 추억 유년의 창문을 열고

신 용 기(사간공파, 33世)

초가지붕 아래 소 마굿간 한 칸  
메케한 연기 속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나무 물통에  
나를 먼저 목욕 시키시고  
아버지는 그 물에 목욕을 하셨지.

소년기 읍내 목욕탕에 갔을 땐  
아버지는 나의 조그마한 등을,  
나는 아버지의 듬직한 등을  
서로 밀어 주었지.

그러나 결혼하고 자식 낳고 부턴  
아버지와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서는  
어릴 적 아버지의 등 모습은  
가마솥 뚜껑보다 더 넓어 보였는데

수의를 입으시던 날 그 모습은  
그간의 추억으로 남아 눈물짓게 했네.

아~ 그리워라 아버지와 함께 한 나날들  
지금도 뒷동산 정정한 느티나무처럼  
늘 내 곁에 자리하신 아버님이시여!

### 저자 약력

- 신용기(譜名 鉉基, 思簡公派 33世)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단등단 : 시 《문예시대》, 수필 《현대문예》
- 시집『빨간 립스틱과 맥주』외 다수 발간
-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평산신씨 광주·전남화수회 지문위원
- E-mail : yks7080@hanmail.net

가 묻은 잠방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본 큰 아이들이 “도깨비가 사람 죽였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줄행랑을 쳤다. 몸이 굽든 내가 맨 뒤에서 뛰어 갈 때였다. 신고 다니는 게다 한 짝이 훌렁 벗겨져 나갔다. 그 게다를 주우며 얼핏 뒤돌아보니 쫓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고즈넉한 길옆에서 “찌르륵~! 찌르륵...”배짱이 소리만 들렸다.

그런 일 있던 8.15광복 직후 김일성 장군 만세를 열렬히 부르는 한편으로 문맹퇴치 운동이 벌어졌다. 언문(諺文)모르는 사람들이 동네 야학에 가서 “가, 가, 거...”를 배웠다. 칠십 가깝던 우리 증조모님도 “ㄱ, ㄴ...”를 외우셨다.

## [자랑스러운 平山人] 한방명의(韓方名醫)자생의료재단

### 신준식(申俊澁, 한성윤공파 34世) 명예이사장

▶ 추나요법 발굴부터 국내 최대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을 일구기까지 ▶



[신준식박사]

평산신씨 한성윤공파 신준식(申俊澁, 34世) 한의사는 1990년 서울 역삼동에 ‘자생한방병원’의 전신인 ‘자생한의원’을 개원하고 전국 21개 한방 병·의원을 갖춘 국내 최대 한방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다. 단순히 병원의 규모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척추 건강을 위한 한방 치료법을 개발해 대중화시키고 국민건강

강보험 제도에 진입시켰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보기 드문 업적이다. 한 인물이 치료법을 만들고, 오랜 시간 의료인들에게 교육해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국가로부터 치료법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준식 한의사가 명실공히 ‘한방명의(韓方名醫)’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문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7대째 한의사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청파 신현표(개명 후 신광열 申光烈)선생과 작은할아버지 신흥균(申奭均) 선생은 한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신준식 한의사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대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왕진을 따라 다니며 자연스럽게 도제식 교육을 받기도 했고, 척추골절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며 척추 질환만큼은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한방 비 수술 척추치료’의 대가(大家)가 됐다.

신준식 한의사는 개척자다. 그는 그야말로 황무지를 개척해 논과 밭을 일구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생한방병원이 있기 전 한의계는 비방(祕方)을 중시해왔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현상이었다. 신준식 한의사는 과감하게 한방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실행에 옮겨 한방치료의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또 현재의 ‘한·양방 협진’, ‘한방통합치료’ 시스템의 기틀까지 세우면서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였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신현표

선생이 강조한 ‘공휼지심(矜恤之心)’의 정신 덕분이다. 늘 약자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고 도우라는 선대의 유지를 받들고 끝없는 고민의 밤을 지새우며 의료인으로서 성장했다. 실제로 선대의 어르신들은 한의사이면서도 독립운동에 투신해 나라와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 한의사로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부친 신현표(申鉉表) 선생의 공휼지심(矜恤之心)을 계승 ◀

이러한 가풍(家風)은 신준식 한의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다. 아버지의 유서인 ‘월남유서(越南遺書)’를 가까이 두고 집안의 역사와 추구하는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겼다. 월남유서에는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쓴 자신과 가족의 일대기가 담겨있다. 자연스럽게 신준식 한의사는 병원을 설립하면서 공휼지심(矜恤之心)을 설립이념으로 삼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기 위해서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가슴 속에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준식 한의사의 아버지는 항상 한의학의 과학적인 검증과 치료법의 표준화를 통해 민족 의학의 위상을 되찾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서 중 대표적인 것이 ‘청파험방요결’이다. 바로 현재 척추질환 치료에 자주 쓰이는 한약인 ‘청파전’의 본류가 담겨있는 의서다. 다만 과거 청파전의 탁월한 효과는 임상을 통해 알려져 있었지만, 치료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신준식 한의사는 오랜 연구를 통해 2003년 청파전에서 신경재생에 효과를 보이는 신물질인 ‘신바로메틴’을 추출해 미국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2011년에는 국내 제약사와 공동 개발한 신바로메틴을 활용한 천연물신약 ‘신바로’가 최종 시판허가를 받았다. 전세계 의료계에서도 주목하는 연구 성과인 것이다. 이처럼 신준식 한의사는 선대의 의료지식을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족자산인 한의학을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시키고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늘 힘들지만 옳은 길을 걸어 온 신준식 한의사의 행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국민훈장을 두 차례(모란장·동백장) 수여 받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한의학 국제교류와 연구 공로와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미시간주립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년에는 척추신경 추나 의학회의 전신인 대한 추나의 학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명예회장으로서 최근에는 한성윤공종중에 2000만원을 기부하며 평산 신씨 후손들이 보다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랑스러운 평산인(平山人) 신준식 한의사는 성금 기부와 함께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으로 갖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감도 남겼다.

▶ 한성윤공(漢城尹公) 제단(祭壇) 완성의 숙원(宿願), 해결 실마리 ◀

한성윤공파종중(도유사 奎澈)에서는 파조(派祖) 휘(諱) 하(夏) 한성윤공의 묘소가 북한에 모셔져 있으므로 향사일인 매년 음력 9월 19일에 한성윤공의 장자 후손들의 세거지인 충남 서천군의 장령공(掌令公)종중 재실에서 향사를 모셔오고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온 규철(奎澈)도유사와 뜻

있는 종원들이 성금을 각출하여 2019년 봄에 장령공 선산을 일부 할애 받아 한성윤공의 제단을 조성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워 완공을 못하고 있었다.

마침, 지난 6월초 대중중을 방문한 잠실자생한방병원 신민식(敏湜) 원장과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철수(澈秀) 대중중도 유사로부터 듣고, 친형인 신준식(申俊湜: 한성윤공파 34世)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에게 보고하니 즉석에서 2000만원의 성금을 한성윤공파종중에 쾌척해 주었다.

성금을 받게 된 한성윤공파종중 규철 도유사와 종원들은 파조 제단완공의 숙원을 풀게 되었음에 감격하면서, 성금을 출연해 준 자생의료재단 준수(俊湜) 명예이사장에게 마음으로 부터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대중중의 철수(澈秀) 도유사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한성윤공파종중에서는 후손들에게 본인의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종원들은 용기를 갖고 사기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근 지역의 타성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평산신씨(平山申氏)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뜻 깊은 일로 인식하고 있다.

[제공 : 자생의료재단 홍보실, 동진 現 대중중고문 및 前 한성윤공파종중 도유사]

### 제의례(祭儀禮) 상식

#### 신흥균(대중중 제례·계보위원장)



시조님 향사진행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사에 관심 있는 종원들에 후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의례(祭儀禮)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적어 봅니다.

#### 1. 제례(祭禮)의 목적

- 가). 기(祈)- 복(福)을 비는 것. 기우제, 풍어제 등
- 나). 벽(辟)- 물리칠벽. 면화(免禍), 재난(災難), 병란(兵亂), 질병(疾病)등을 물리쳐 주십사하고 비는 것
- 다). 보본반시(報本反始)-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선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 2. 제의례의 의미

- 가). 제례는 효를 잇는 것. 추양계효(追養繼孝)-보본반시(報本反始). (돌아가신 분을 계속 봉양하여 효를 이어가고,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고, 처음 비롯된 근본을 잊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을 뜻한다)
- 나). 祭는 경(敬)과 찰(察)
- 다). 祭는 인신상접(人神相接)

#### 3. 제계(齋戒)

제사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혼백과 귀신을 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제계(齋戒)가 필요하다. 이 제계를 '정화(淨化)'라고 달리 표현해도 좋다. 재(齋)란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고, 계(戒)란 '우환을 방지하다.'라는 의미이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자기와 인연 있는 혼백과의 만남을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할 것이다. 음식을 삼가고 마음과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한다.

- 釋奠 : 散齋 3日과 致齋 2日로 五日 동안을 齋戒
- 四時祭 : 散齋 2일, 致齋 1일 計3일. 墓祭 : 1일. 忌祭 ; 1일.

- 가) 산재(散齋) : 외부에서 자거나 술과 마늘을 먹지 않고, 문병과 조상을 삼가며, 음악을 듣지 않고, 형사 사무를 보지 않으며, 추하고 사나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
- 나) 치재(致齋) : 내적인 면에서 마음을 정재(整齋)하여 제사할 神만을 생각한다. 근신하면서 행례에 임한다.
- 다) 재숙(齋宿) : 齋家하면서 別居 잠자리를 한다.
- 라) 祭祀 지낼 때에 齋戒하는 마음 가짐, 입재일(入齋日) 堂과室을 清潔히하며 沐浴 改衣하며 宿于外寢(부부동침 않음)하고 不關外事(바깥일을 간섭하지 않음)하며 不飲酒하고 思生時所爲(부모님이 살아계신 듯 생각)하고 思生時所樂(살아계실 때 즐거워 하던 것을 생각)하며 思生時所嗜(살아계실 때 즐겨 드시던 것을 생각)하고 遺稿와 影幀도 벌에 말려 손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 마) 정재일(正齋日) 당일엔 言不聲大(말은 소리가 크게 하지 않고) 怒不上面(얼굴에 성냄 표정을 하지 않고) 朝洗魚饌(아침 일찍 손을 씻고 물고기 반찬을 만들고) 한낮에 화로에 구우면 제수가 정결하며 제상.제기.향로.향합.촛대.축판.모사기 등을 깨끗이 씻고 부모님을 생각하되 聽於無聲(소리는 없어도 들리는 듯이)하고 觀於無形(형체는 없어도 보이는 듯이)하라 誠意가 극진하면 父母의 音聲이 들리는 듯 부모의 形容이 보이는 듯 하는 것이 齋戒이니라.

\* 考證 : 輪鑑錄 祭禮에서 = 善光 =

4. 제삿 날자와 시간에 대하여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제사의 경우 부모님 기제사의 예(例)를 든다. 돌아가신 날자가 10일이라고 한다면, 그간에는(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제사 하루 전일인 9일을 입제일(入祭日)이라고 해서 9일 날 저녁에 후손들인 남녀들이 모여서(제사를 맡아 지내는 장손집) 제사 준비도하고 일가들끼리 담소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자시(子時: 밤11시~1시)에 제사를 지낸다, 식사들하고 집에 가면 보통 새벽 3시가 넘는다. (아직도 이렇게 행례하는 집안이 많이 있고 전통예절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그간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 자시에 제사를 지내고 당일 집에 갈 수가 없었고, 요즘은 다들 직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늦게 제사를 봉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입제날(9일) 저녁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10일이 돌아가신 날이고 제삿날인데 9일이 제삿날로 알고 9일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제삿날이 돌아가신 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축문 내용에도 있다, 즉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를 해석하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하는 말로서 돌아가신 날 제사를 봉행한다는 증거적인 문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래 실정에 맞게 기(忌)제사는 '돌아가신 날 밤에 지낸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위의 예를 참고한다면 10일 날 밤에 지내면 된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입제일(入祭日)을 없애고 10일 저녁에 모여서 10일 일몰 후 1시간이면 어느 정도 어둠이 깔리니까 그 이후 적당

한 시간에 지내고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면 다음날 일과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기(忌)제사 날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고, 제사 올리는 시간은 돌아가신 날 밤(일몰 1시간이후 적당한 시간)'으로 권장한다.

### 宗中에 관한 研究①

권수공파도유사 신 권 채  
(申權彩法務士, 34世)



#### 1. 宗中의 意義

宗中이란 共同先祖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墳墓(분묘) 守護(수호) 및 奉祭祀(봉제사)와 후손 宗員간의 親睦(친목)

을 圖謀(도모)하고 宗中財産管理를 目的으로 形成되는 自然發生的인 宗族團體(종족단체)로서 그 先祖의 사망과 동시에 그 後孫에 의하여 成立하는 것이며 宗中의 規約(규약)이나 慣習(관습)에 따라 選出된 代表者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組織(조직)을 갖추고 持續的(지속적)인 活動을 하고 있으면 宗중이라 하고 共同先祖의 後孫중 成年이상의 男女를 宗員으로하여 構成(구성)되는 宗族團體이다. 共同先祖와 姓과 本을 같이하는 후손은 性別의 구별없이 成年이 되면 당연히 宗중의 構成員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5. 7. 21. 2002다1178) 또 法人 아닌 社團(사단)의 일종이고, 國세 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대법원 1994. 9. 30. 93다27703)

#### 2. 宗中의 成立

① 고유 의미의 宗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宗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당연히 그 宗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宗중원을 임의로 그 宗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宗중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宗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宗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宗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宗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宗중으로는 볼 수 없고, 宗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1993. 10. 11. 95다34330)

② 宗중원은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宗중의 構成員이 되고, 宗중에서 탈퇴할 수 없고 宗중도 宗중원을 축출할 수 없으므로, 일부 宗중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은 宗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1983. 2. 8. 80다1194)

③ 宗중이 '그 構成員인 宗중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및 10년 이상 宗중원의 자격(각종의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 같은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宗중단체인 宗중의 본질에 반한다. 따라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 무효이므로, 피징계자인 宗중원으로서

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6. 10. 26. 2004다47024)

#### 3. 宗中의 種類

##### ① 大宗中과 小宗中

宗중에는 공동선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大宗宗 또는 小宗宗으로 구별된다. 宗중은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宗중안에 무수한 小宗宗이 있을수 있으므로 공동선조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大宗中은 시조를 기준으로 本貫 및 姓氏를 표시하고, 小宗中 및 支派宗中은 본관 및 성씨 파조의 관직명, 雅號(아호), 封號(봉호), 別號(별호), 거주지명 등을 첨가하여 같이 표시한다.

##### ② 宗中과 門中

宗중과 門중은 같은 의미이나 門중은 同姓同本의 一族 특히 소규모의 宗중 즉 繼高組(계고조) 이하의 宗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門중 즉 一門은 一族의 分派로서 대개 有服親(유복친)의 범위 즉 繼高祖(계고조) 이하의 宗중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③ 花樹會

화수회는 가계를 하나의 꽃나무에 비유 한 성씨를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여 ①나무뿌리는 근원으로서 조상을 ②나무는 대종중을 ③가지는 분파종중 또는 지손을 의미하고 ④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뜻하고 있는 가족의 나무라고 표현한 宗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宗중단체이다.

#### 4. 宗中의 構成員(宗員)

宗중의 構成員은 그 宗중에서 奉祭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공동 선조를 달리하는 宗중은 그 構成員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宗중으로 보아야한다.

宗중은 공동선조의 祭祀奉行(제사봉행)이란 單一不可分의 목적으로 생긴 自然發生的인 宗族集團으로서 대법원은 宗중의 構成員을 그 宗중의 성년 남녀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 5. 宗중규약(宗헌) 및 宗중사무소

일족(대종)또는 일파(소종)의 자손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宗중총회의 운영(宗중구성원 宗중재산의 관리방법, 임원의 선임, 목적사업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한 규약을 宗중규약 또는 宗헌이라고 하며,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를 宗중사무소라고 한다.

#### 6. 宗중소집통지

① 사단법인의 총회소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에 위반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가 무효이다. 즉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에서 한 대표자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판 1990. 11. 13. 90다28542)

② 일부 宗중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宗중총회의 결의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宗중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대판 1995. 6. 16. 94다53563)

③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宗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판 2000. 2. 15. 99다20155)

④ 宗중의 족보에 宗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宗중 임시 총회에서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대판 2007. 9. 6. 2007다34982) 대법원전합

의체 2005. 7. 21. 2002다1178 이후에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10. 2. 11. 2009다83650)

7. 종중재산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總有(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소유한 매장 제사용의 토지·건물, 祭費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位土란 그 수익으로 조상 제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宗山이라고 조상묘분이 소재하는 곳으로 同宗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중재산은 종중 사회단체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 제275조는 이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이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宗中 宗會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276조).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의3조)

8. 宗中財産에 대한 保存行爲

종중이 그 總有財産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즉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판 2010. 2. 11. 2009다83650)

☞ 란 부족으로 다음 호에 ㉓편이어집니다.

평산신씨 후손 국가지정 표준영정 (平山申氏 後孫 國家指定 標準影幀)

문화부

표준영정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을 의미하는데,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선현들과 문화, 과학, 학문, 정치, 종교,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인들의 「영정·동상들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선현의 영정 및 동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공공단체(각급 기관) 또는 관련단체, 문중 등의 신청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지도, 심의를 받아 선정해오

고 있다. 그동안 1973년 충무공 이순신의 표준영정을 지정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98명의 선현에 대한 표준영정을 지정하였다.

당초에는 충무공 이순신(忠武公)장군의 영정을 통일하라는 대통령지시(73.4.28) 및 국무총리지시(73.5.8)에 의거한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 공고(73.6.30)를 근거로 하여 시작이 되었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제정 1996. 5.21 문화체육부훈령 제60호)을 근거법령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평산신씨 문중에서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분은 3분으로서,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좌의정까지 지내셨던 문희공파조(文禧公派祖), 인재(寅齋) 신개(15세, 申槩 1374년~1446년)의 영정으로 2013년도에 지정된 박서림 작가가 제작하였다. 크기는 180cm×120cm이며 소장자는 문희공파종중이다. 또 한분은 울곡 이이(李瑀)의 어머니 신사임당(19세, 문희공파, 1504년~1551년)이다.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경문(經文)을 익히고 문장, 침공(針工), 자수(刺繡)에 능했으며 특히 시문(詩文)과 그림에 뛰어나 여러 편의 한시(漢詩)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제일의 여류화가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오늘날의 5만원권 화폐 도안의 주인공이다. 영정은 이당 김은호 작품으로 1986년도에 지정되고 크기는 140cm×85cm이며 소장자는 강릉오죽헌이다.

마지막 한분은 조선중기의 무신 신립(19세, 申 文희공파 1546년~1592년)장군이다. 당시 여진족인 야인들이 국경을 침범하여 약탈을 일삼을 때 그 야인들을 섬멸한 공으로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순변사로 참전, 충주탄금대 전투에서 아군이 섬멸되자 김여물 장군과 함께 남한강물에 투신, 순절하였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장공의 시호를 받았다. 2004년에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장군의 영정은 박성태작가가 제작하였으며 충주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건강정보



낙천적인 사람, 뇌졸중·심장마비 위험 낮다

긍정적으로 살면 건강에 좋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크 병원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뇌졸중·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세인트루크병원 앨런 로잔스키 교수 연구진은 낙천적인 성격과 질병 발생률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23만 명을 평균 14년 동안 추적했다.

낙천적인 성격은 심리적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낙천주의자는 뇌졸중과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5% 낮았고 암·치매·당뇨병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도 14%나 낮았다. 앨런교수는 “낙천적인 성격이 주는 건강 효과는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낙천적인 사람이 건강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자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스트레스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우울증·불안감을

유발하지만 낙천주의자는 감정 조절을 잘해 자신을 스트레스로부터 잘 보호했다. 세 번째로 낙천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장수 유전자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능력이 더 컸다. 앨런 교수는 "실제로 보스턴대학 연구에서 낙천주의자는 85세 이상까지 장수할 확률이 비관론자보다 높았다."며 "낙천주의는 예로부터 건강수칙으로 알려진 만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텔로미어: 염색체의 말단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입자로서 세포노화 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추측.

[문화부제공]

## 대중중 표창대상자 및 장학생 선발 계획

평산신씨 대중중과 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원을 발굴하여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치하하고 또 사기를 앙양시켜 평산신씨 대중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표창대상자 선발 세부 계획

1. 표창자 선발 인원 : 10명 내외
2. 자격
  - 가) 을미대동보(2015년 발간) 및 인터넷족보에 등재된 상계가 분명한 종원.
  - 나) 효자효부(평산신씨 종원 및 배우자)
  - 다) 대중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종원(5년이상 중직무를 수행하거나 대중중을 위한 헌성 또는 봉사로 대중중 발전에 공헌한 종원)
  - 라) 평산신씨 명예를 드높인 종원(국가사회를 위한 공로 및 명성으로 수상자)
  - 마) 신청 : 파종중 및 화수회당 1명
  - 바) 5년이내에 수상한 종원은 배제함.
3. 구비서류
  - 가) 표창대상자 추천서 1매(공적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파종중도유사 또는 거주지 시도화수회장의 확인 날인
  - \* 양식 : 대중중홈페이지 - 사랑방소식 - 에서 다운받기, 대중중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 나) 을미대동보(2015년 발간) 또는 인터넷족보 등재 사본 1 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생략분 발급)
  - 라) 사진 : 반명함판 1 매
4. 접수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월 31일 (기일 초과시 제외)
5. 접수처 : 평산신씨 대중중(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6. 표창자 발표 :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사, 검토 결정 후, 개별 통지하며 시상식은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시 수여함.

### ▶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

1. 장학생 지급 대상 : 4년제 정규대학교 학생 중 2, 3, 4학년 재학생 (복학한 경우 1개 학기 이상 재학생):2021년 기준
2. 장학생 선발 인원 : 20명
3.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2회) 총예산 4,000만원
4.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평균, 4.5평점 기준)
  - 가) 평산신씨로 2015년 대중중에서 발간한 족보(을미대동보) 또는 인터넷 족보에 등재된 종원.
  - 나) 신청時 前학년 성적 (4.5기준)

1그룹	서울대, 포항공대(포스텍), 고려대(서울), 연세대(서울), 카이스트, 각 대학 의대(서울지역, 간호학과 제외)	평점3.4이상
2그룹	성균관대, 경희대(서울), 한양대(서울), 서강대(서울), 이화여대(서울), 중앙대(서울), 건국대(서울), 서울시립대, 동국대(서울), 홍익대(서울), 단국대, 경북대(대구), 부산대(부산), 전남대(광주), 전북대(전주),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울산과기대(Unist), 광주과기대(Gist), 한국외대, 경찰대, 각지역 의대, 서울지역대 간호학과	평점3.6이상
3그룹	기타대학(외국 대학교 제외)	평점4.0이상

5. 장학금 지급 기간 : 선정된 당해 연도 1, 2학기
6. 장학금 신청 기간 : 2021년 1월 1일 ~ 1월 31일 (기간 초과시 제외)
7. 선정 방법
  - 가) 선발인원 : 20명
  - 나) 선정방법 : 성적 2개 학기 평균 평점
    - 1)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 평가 선발 (추천평가에 반영)
    - 2) 평가 선발
      - 성적평가 : 10명 → 前'4'항 성적기준(1그룹 5명, 2그룹 5명:1그룹에서 부족시 2그룹에서 선발)
      - 추천평가 : 8명 → 前'4'항 성적기준 50%, 각파종 중도유사 및 화수회장의 공적과 기여도를 50%
      - 특별추천평가 : 2명 → 대중중에서 헌신적으로 10년이상 기여한 종원의 직계 또는 사회적 선행을 하거나 모범생, 효자효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으로 각파종중도유사 및 화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 3) 기타
      - \* 동점인 경우 대중중 임원의 자녀 우선
      - \* 모든 선발자는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어야 함.
      - \*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성적, 인성, 대중중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
8. 구비서류
  - 가) 장학금 신청서(대중중 홈페이지 다운로드) 1통.
  - 나) 前 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통.(복학생 포함)
  - 다)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통.(주민등록 뒷 번호 생략분)
  - 라) 을미대동보(2015년 대중중 발행)나 인터넷 족보의 본인등재 사본 1통.
  - 마) 반명함 사진 1매.
  - 바) 본인 은행통장 사본 1통.
  - 사)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통.(주민등록 뒷번호 생략)

- 9. 장학금 지급
    - 1학기 : 3월말 이내
    - 2학기 : 8월말 이내
  - 10. 지급 후 확인 절차
    - 가) 장학금을 수령 후에는 납부한 등록금 영수증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2주 이내 필히 대종중에 제출하여야 함. (대종중주소 : 중구 수표로 22)
    - 나) 군입대, 휴학, 성적미달자(2학기 해당 : 前학기 성적보다 10%이상 미달자), 장학금 수령 후 미등록자 등은 지급이중단(회수)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장학금 신청서
- 홈페이지 : <http://www.pyeongsan.com>에서 다운받기
  - E-mail : [pyongsan777@naver.com](mailto:pyongsan777@naver.com)으로 요청하기

### 족보 등재 신청 받습니다.

평산신씨 대종중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친회원이 되시면 '전자대동보' 메뉴에서 족보를 검색하여 볼 수가 있고, 별도로 수단 신청(신규등재, 수정, 변경, 추가, 삭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수단 신청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보내시면 일 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등재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pyeongsan.com>

### 2020년 11월 ~ 2021년 1월 행사 안내

**[2020년]**

- 11월 15일(일, 음 10월 1일) : 밀직공파조 향사
- 11월 15일(일, 음 10월 1일) : 문화공파조 향사
- 11월 15일(일, 음 10월 1일) : 정언공파조 향사
- 11월 16일(월, 음 10월 2일) : 현령공파조 향사
- 11월 17일(화, 음 10월 3일) : 진사공파조 향사
- 11월 18일(수, 음 10월 4일) : 판사공파조 향사
- 11월 19일(목, 음 10월 5일) : 사간공파조 향사
- 11월 23일(월, 음 10월 9일) : 판윤공파조 향사
- 11월 24일(화, 음 10월 10일) : 이상공파조 향사

**[2021년]**

- 1월 20일 종보188호 발행 예정
- 1월중 2021년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 1월중 2021년 표창대상자 서류 접수

### 종보 성금 보내주시분 (2020. 7. 20 ~ 10. 31)

보내주시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알뜰하게 잘쓰겠습니다.

개 인			
신광섭(신동의)대전중구	100,000	신문웅 서울시 성북구	100,000
신태문 경기도 하남시	20,000	신정섭 경기도 성남시	30,000
신동규 광주시북구	20,000	신상철 강원도 홍천읍	30,000
신창균 서울 서초구	20,000	신희주 인천시 남동구	50,000
신흥식 경북 문경시	50,000	신원균(경북 안동시)	100,000
신완섭 서울 구로구	20,000		
파 종 중			
표충재종중	100,000	온수감공종중	100,000
한성윤공종중	100,000		
소 종 중			
문화공파 금화종중	50,000		
시 도 화 수 회			
강원도화수회	100,000	대전충남화수회	220,000
시 군 구 화 수 회			
김천시화수회	50,000	영동군화수회	30,000
용인시화수회	100,000	군산시화수회	100,000
상주시화수회	60,000	청송군화수회	50,000
평산경백문화재단	100,000	담양군화수회	50,000
예산군화수회	100,000	서울중구화수회	50,000
<b>합</b>	<b>계 1,900,000원</b>		
<b>총</b>	<b>계 8,436,056원</b>		

### 종보구독을 권유합니다

종보는 평산신씨의 얼굴이고 역사입니다. 선조들의 삶에서 지혜와 교훈을 배우고 또 전국의 종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산신씨 가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할 것이며 동질성의 확인으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고 친목과 화목·단결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후손들에게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번창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부터 가까운 친척 또 이웃에 계신 종보를 보지 않는 종원들에게 종보를 보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대종중 : 02-776-6151, 6111 / 파종중 및 화수회 담당자

### 종보에 게재할 원고 모집

- 시, 수필, 공트, 기행문 등 문예작품
- 선조 및 종사에 관한 글, 종중행사, 미담(美談) 등
- 채택된 원고는 종보 게재용으로만 활용(문인협회 등단체 우선함)
- 보낼 곳 : 평산신씨대종중(이메일: [pyongsan777@naver.com](mailto:pyongsan777@naver.com))

###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까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까지 년 5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인터넷족보비**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송금 시 : 송금인과 지역명을 같이표기